

# 애플,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 출시

애플이 21일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를 내세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프리미엄제품과 보급형 제품을 내세워 매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아이폰 SE는 화면 크기를 '아이폰 5c'처럼 4인치로 줄였지만, 성능은 '아이폰 6s'와 비슷한 수준이다. A9 칩셋, 1200만 화소 카메라, 애플페이, 4K 비디오 녹화 등 최신 기능이 적용됐다. 하지만 가격은 399(16GB·46만원)~499달러(64GB·58만원)로 아이폰 6s 649달러(16GB·77만원)보다 저렴하다. 아이폰SE는 5월 말까지 110개국에 출시된다. 1차 출시국은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12개국이다. 한국은 제외됐다.

## 프리미엄 제품과 함께 시장 공략... 1차 출시 한국 제외

아이폰SE는 549달러(16GB·68만원)부터 출시돼 흥행에 실패했던 전자 보급형 아이폰 5C보다 150달러 이상 저렴해 중저가 중심인 신흥시장 공략에 유리하다. 틱톡 애플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 발표 당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글로벌 경기 침체, 중저가폰 시장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아이폰 출하량은 7478만대로 시장 전망치(7550만대)를 밑돌았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0.4%로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아이폰을 출시한 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도 사정은 좋지 않다. 애플은 올해 1

분기(1~3월) 매출을 시장 전망치(555억달러)보다 낮은 500억~53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폰 SE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시장은 아이폰 SE가 연간 1000만~1500만대 출하돼 아이폰 매출의 5~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성표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SE 가격은 아이폰C보다 경쟁력이 있다"며 "2013~2014년 4인치 아이폰 모델을 구매한 2억명이 잠재적인 구매자가 될 수 있다. 증가 시장에서 A시리즈로 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이

폰 SE 수요는 4인치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기존 사용자가 주를 이룰 것"이라며 "상반기 아이폰 출하량 반등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화면 아이폰(아이폰 6s) 신제품 효과가 조기 종료되고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경쟁모델 출시가 지연되면서 국내 업체의 프리미엄 단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폰SE가 기존 아이폰보다는 저렴하지만 다른 단말보다는 가격이 높으며 '루나, 솔' 등 기존 중저가폰 시장을 잠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국내 시장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분되고 5인치 이상 디스플레이 선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큰 파괴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진수 기자

## 선진국 통화안정 기조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선진국의 통화안정 기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악화를 방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회복을 이끄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IC경제연구원은 22일 '미이너스 금리에도 선진국 통화안정 기조는 높인다'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가 반등과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IC경제연구원은 22일 '미이너스 금리에도 선진국 통화안정 기조는 높인다'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가 반등과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연방기금금리를 동결했고 영국은 지난 17일 0.5%의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 14일 예치금금리 -0.1%를 이어갔다. 유로존의 경우 기준금리를 0.05%에서 0%로, 기준 예치금리를 -0.3%에서 -0.4%로 낮췄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이 같은 통화안정 정책으로 1월 중 배럴당 22달러까지 급락했던 두바이유는 3월, 30달러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완화되고 달러화 강세가 후퇴했다. 신흥국으로부터 빠져나갔던 자본이 재유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각 신흥국의 통화기저와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자산 선호현상 완화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완화현상은 떨어지는 중이다. 2월과 1월 3조1000억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순매도 규모를 2000억원으로 줄인 뒤 3월 3조3800억원의 주식을 사들이는 추세다. 보고서는 미이너스 예치금 금리가 시중은행의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징벌적 성격의 이자를 물기보다 기업 등 민간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경기 둔화로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하거나 예금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안정 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소비나 투자, 수출확대 등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불응포가 불는다고 지적했다. 이상선 IC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재정확대와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안정 정책은 추가적인 경기 악화를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경기회복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작년 보험사기 6549억 '최고'

허위·과다 사고 사기 전체 적발금액의 75.8%

# A씨 등 일가족 5명은 월 보험료 400만원을 들여 보장성 보험 154개에 가입했다. 이후 입원할 필요도 없는데도 고혈압 등의 이유로 10년 동안 2141일을 입원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의 병원을 돌리다며 보험사로부터 총 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태낸 끝에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총액이 6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과 같은 허위입원으로 새나간 보험금은 996억9900만원이었다. 허위입원, 허위진단, 사고내용조작 등을 모두 포함한 허위·과다 사고의 사기 적발금액은 4963억400만원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자살, 살인 등의 고의사고가 975억원(14.9%)으로 뒤를 이었다. 병원·정비공장 등이 나서 실제보다 피해를 과장한 피해과장 사고는 353억원(5.4%)이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80만원으로 전년보다 10.4%포인트 늘었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47.0%(3074억7500만원)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2005년 77.6%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약 30%포인트 줄었다. 장기손해보험이 37.1%(2428억9300만원), 생명보험은 13.6%(890억7700만원)로 뒤를 이었다. 블랙박스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사기 자체가 감소했고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로 생명·장기손해 보험과 관련한 적발 건수는 늘었다고 금융원은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 정비업체 등의 종사자는 전년 2289명보다 36.1% 증가한 308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인원은 8만3431명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5%),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이었다. 금융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원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1332)나 신고홈페이지(irsmp.fss.or)를 통해 가능하다. /인진수 기자



4세대 프리우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 출시 행사에서 요시타 이키(왼쪽)와 요시타 이키(오른쪽) 한 국토요타자동차 시장과 토요시마 코지 토요타 수석엔지니어가 신차를 선보이고 있다.

##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증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또는 피싱으로 빼돌린 공인인증서 등이 신용카드가 발급에 이용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액은 올해만 4억1000만원에 달했다. 카드 부정 발급에 사용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뒤 입력하면서 유출됐다. 또 전화를 받고 상대방에게 신분증 발행일자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준

뒤 사용한 적 없는 신용카드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에 대한 해킹 또는 금융범죄에 따른 것으로 카드사와 은행 전신망에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금융원은 전했다. 금융원은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한 카드에 대해 직접 수령 또는 발급신청 내역을 재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카드사들에 주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보완해 카드발급 신청을 전후로 변경 사항이 있거나 동일한 컴퓨터에서 여러 차례 신청 시도가 있는 경우 등을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 한국타이어 BMW '뉴7 시리즈' 신차용 공급

한국타이어가 국내 타이어 기업 최초로 BMW 플래그십 모델 '뉴 7 시리즈'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한국타이어는 22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한국타이어 익스퍼리언스 데이 2016'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국내 타이어 기업 최초로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독일 3대 수입업체 타이어를 공급했다. 2015년에는 포르쉐까지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BMW는 2011년 미니(MINI)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 데 이어 BMW 1~5시리즈 SUV X1과 X5 등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해왔다. 올해 '뉴 7 시리즈'를 포함해 BMW 전 라인업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뉴 7 시리즈에 공급하는 신차용 타이어는 '벤투스S1 에보2 런플랫'과 '윈터 아이슬릿 에보 런플랫'으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3세대 런플랫 타이어다. 벤투스S1 에보2 런플랫은 안정적인 핸들링 뛰어난 제동력, 낮은 회전저항, 주행 소음 성능 등을 실현했으며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윈터 아이슬릿 에보 런플랫'은 겨울철 노면에서 최강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낮은 회전 저항을 구현했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